



공동체적인 노동신학의 정립

(지배와 의존의 관점에서)

윤 형(장신대)

1. 들어가는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에서 10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은 그 동안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말 세계 여러 나라가 부러워 할 정도로 우리는 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내적으로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면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핵심적인 생산 요소인 노동에 대한 인간론 내지 윤리 부문이 취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여기서 한 단계 도약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산업계 내부에 내재하는 부정적인 노동관을 수정하지 않고는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 특히 사회 및 산업현장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정부와 기업 사이, 기업과 기업 사이,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의 주종관계적인 상하지배관계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가 전체 내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간관을 갖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성숙한 ‘공동체적인 노동신학’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은 노동과 관련된 구약 본문을 주석하고 해석하면서 노동의 정체성 문제 및 그 노동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공동체적인 노동신학에 대해 근본적인 신학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 ‘공동체적 노동신학’을 학문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연구하려고 한다. 첫째, 언어적 분석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히브리어 원문(맛소라 텍스트/MT)을 주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휘의 근본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그것을 분석과정에 적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해당본문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낱말의 정의를 정확히 규정해야 그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문에 대한 여러 주석방법 중에서 과거 모든 전승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최종 본문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정경비평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¹⁾

2. 연구사

우선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학계의 노동관련 논문들은 대부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주제로 삼

1)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B5A07036240]." 이 방법은 역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통시적(diachronic)인 방법이라기보다, 독자의 입장과 본문의 의도에 상대적인 중점을 두는 공시적(synchronic)인 방법으로서 특히 본문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신앙공동체의 입장을 고려한다.

고 그 대응방안을 궁구한다. 이러다보니 노동의 실제 당사자인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인 인간관을 다룬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신학부문에서도 노동 관련 논문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설사 노동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른 주제에 부속시켜 부수적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노동주체와 관련하여 린트하겐(C. Lindhagen)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구약에 나타난 ‘종’의 모티브의 중요성을 다루었다.²⁾ 거기서 그는 성경과 성경외적인 자료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עֶבֶד(에베드/종)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그는 종 모티브의 개념을 약자와 강자간의 상호관계로 정의했다. 리제너(I. Riesener) 또한 그 개념을 상세하게 분석했다.³⁾ 그의 목적은 그 낱말의 근본적인 의미를 어간(עָבַד/아바드/일하다)의 다른 파생 형태들과의 연관성 안에서 규정하는데 있다. 그에 따르면 그 어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의존되어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웨 및 다른 신들에 대한 제의적인 숭배와 관계된다. 이에 따라 그 어근에 속한 파생어들은 ‘제 삼자에 의해 야기된 행위’를 표현한다. 이 동사는 성경의 노동관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낱말이다. 한편 1953년 리차드슨(A. Richardson)은 구약이 노동에 대하여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는지 질문했는데, 거기서 노동이란 사람의 삶에 있어서 불가피하고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기능이라고 간주된다.⁴⁾ 특히 그는 노동을 율법(토라)에 근거한 성경교훈과의 관계성 안에서 주목하는데, 왜냐하면 즐겁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전체공간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볼 때 보편적이면서 최적이기 때문이다. 1971년 페티나토(G. Pettinato)는 ‘왜 인간이 창조되었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고대 오

2) C. Lindhagen, *The Servant Motif in the Old Testament* (Uppsala: Lundequistska, 1950), 48.

3) I. Riesener, *Der Stamm עֶבֶד im Alten Testament* (Berlin: de Gruyter, 1979), 112.

4) A. Richardson, *Die biblische Lehre von der Arbeit* (Frankfurt a. M.: Anker, 1953), 20.

리엔트 세계의 전승들을 연구했다.⁵⁾ 거기서 사람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시켜 나가는 목적 지향적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위한 단순한 매개체로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신들이 직접 감당해야 했었던 어려운 일을 그들로부터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영락없이 주종관계이다. 노동과 관련하여 베스터만(C. Westermann)은 성경 원역사(창 1-11장)에 나오는 문화업적 및 그 발전의 성과는 무엇보다 인간의 문화적인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⁶⁾ 고대 수메르 신화의 배경 하에 그는 문화생성에 대한 구약적인 시각의 독특함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창조자와 창조에 대한 진술에서 무엇보다 노동과 문화(Work and Culture)를 중요한 요소라고 이해한다. 1982년 한국 천주교 정의 평화위원회는 교황 레오 13세 회칙(1891년)의 노동현장 소개를 통해 근로자간의 상호의존관계를 강조하였다.⁷⁾ 1985년 로핑크(N. Lohfink)는 안식일 계명을 성경적인 노동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로서 규정한다.⁸⁾ 즉 노동과 안식에 근거한 균형 잡힌 노동관을 주장했다. 1978년 에바흐(J. Ebach)는 창세기와 고대 헬라세계의 노동에 대한 개념을 연구했다.⁹⁾ 그는 성경 원역사(창 1-11장)의 노동과 이스라엘 주변 세계인 고대 오리엔트 세계의 노동을 비교하면서 노동이 처음에 어떻게 신들과 인간 사이에서 생겼는지 서술한다. 그에 따르면 노동이란 인간의 문화발전과 불가피하게 관련되어있다. 그는 고대 헬라

-
- 5) G. Pettinato, *Das altorientalische Menschenbild und die sumerischen und akkadischen Schöpfungsmymthen* (Heidelberg: Carl Winter, 1971), 29.
 - 6) C. Westermann, *Genesis BK 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9), 94.
 - 7) 교황레오 13세, 「노동현장」(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옮김),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7), 25f. 원제는 Pope Leo XIII, *On the Condition of Workers: Rerum Novarum* May 15, 1891 (Publication No. 333-7).
 - 8) N. Lohfink, *Unsere großen Wäter* (Freiburg: Herder, 1985), 190-208.
 - 9) J. Ebach, *Wententstehung und Kulturentwicklung, bei Philo von Byblos* (Stuttgart: Kohlhammer, 1979), 281.

세계에 나타났던 여러 직업발명가들을 예로 들면서 인간 노동의 기원을 분석하고 그것을 성경 원역사에 나오는 여러 문화업적 및 노동활동과 구체적으로 비교한다. 그 글에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날카로운 분리에 대한 논쟁이다. 이를 통해 그는 성경에서 노동이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부각시켰다. 이후 1986년 그는 ‘노동과 안식’이란 글에서 노동 개념을 다시 새롭게 주제로 부각시킨다.¹⁰⁾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성경 원역사와 고대 헬라세계의 노동개념 사이의 차이점에 관한 것이다. 무엇보다 거기서 문제는 고대헬라세계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사이의 날카로운 분리의 결과물이기도 한 노동과 안식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다. 그래서 그는 성경적인 이해를 통해 잘못된 범주적인 분리를 수정하려고 한다. 그는 전형적인 그리스 철학의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노동과 안식이 함께 연결되어있으며 서로 배제할 수 없는 관계로 보는 구약적인 견해와 대립되어있다고 주장한다. 2004년 그는 다시 한 번 ‘Menschen mit, nicht durch Arbeit’(사람은 노동과 더불어 사람이 되는 것이지, 노동을 통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라는 제목으로 노동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¹¹⁾ 여기서 그는 노동이란 원래부터 인간에게 속한 것이지, 거꾸로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인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랍비의 글인 Mischnatraktat Pirque Avot (아버지의 잠언)에서 가져온 한 문장의 인용을 통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불가분리의 관계를 강조한다. 랍비 예후다 나하시(Jehuda haNasi)의 아들 랍비 감리엘(Gamliel)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름답도다! 토라연구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일과 연결된 것이.” 왜냐하면 토라와 생활, 이 양자에 근거한 노동은 죄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 없는 모든 토라연구는 궁극적으로 수포로 돌아

10) J. Ebach, *Arbeit und Ruhe*, in: *Ursprung und Ziel. Erinnerter Zukunft und erhoffte Vergangenheit. Biblische Exegesen Reflexionen Geschicht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5), 90-110.

11) J. Ebach, “Menschen mit, nicht durch Arbeit”, *ThPQ* 152 (2004), 275-283.

가며 죄를 가져온다 (Avot II, 2).¹²⁾ 2004년 브락켈만(G. Brakelmann)은 기독교의 노동윤리란 책에서 상호관계적인 노동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즉 노동에 있어 공동체정신을 강조했다.¹³⁾ 노동과 안식과 관련하여 2005년 하경택은 ‘노동과 쉼에 대한 구약성서의 이해’란 글에서 노동이 근본적으로 창조질서에 속하며 거기서 쉼은 그 노동의 완성이라고 주장한다.¹⁴⁾ 2010년 윤형은 ‘노동과 주권’이란 글에서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인간이 공동체적 관계에 있음을 주장한다.¹⁵⁾ 이와 같은 노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면서 본 논문의 핵심과제인 공동체적인 노동신학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노동에 대한 사회사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노동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노동이란 물질적-정신적 생산물의 창조, 생산, 변환, 분할 및 그 활용과 관련된 일련의 연속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동작이다.¹⁶⁾ 말하자면 노동이란 노동주체가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 당면과제를 수행하는 각각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른바 작업자의 목적지향적인 육체적-정신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사적인 노동의 역사

노동의 정의에 이어 현재의 노동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대 세계의 노동관과 성경적(구약과 신약)인 노동관 그리고 유대적인 노동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의 노동관은 역사를 통해 불가피하게 현재의 노동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12) 윗글, 280.

13) 권터 브락켈만, 『기독교 노동윤리』(백용기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4), 97-100. 원제는 G. Brakelmann, *Zur Arbeit geboren?* (Bochum: SWI-Verl. 1988).

14) 하경택, “노동과 ‘쉼’에 대한 구약성서의 이해”, 『교육목회』26 (2005. 가을호), 26-31.

15) 윤 형, “성경의 원역사에 나타난 노동과 주권 (창 1-11장)”, 『구약논단』41집 (2011년 9월), 136-157.

16) REFA(노동시간조사위원회), *Methodenlehre des Arbeitsstudiums Teil I* (München: Hanser, 1973), 14.

다. 이에 반해 성경적 노동관은 고대세계의 노동관과 다른 입장에 있다. 따라서 사회사적으로 노동의 발생 배경 및 그 발전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부문으로 나누어 다양한 사회에서의 노동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대세계의 노동관(오리엔트/이집트/히랍/로마)

우선 고대 세계, 즉 수메르, 아카드 등의 고대 근동세계에서의 노동관을 살펴본다. 특히 수메르 문명은 인류문명의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간이 처음에 문명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노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긴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관을 살펴보고 오늘날 현대인의 노동관과 비교해 보는 것 또한 흥미롭다. 그리고 수메르와 함께 살펴볼 것은 아카드 제국에서의 노동관이다. 페티나토(G. Pettinato)에 의하면 아카드 사람들과 수메르 사람들의 노동관에 있어 차이가 있다. 즉 수메르 사람들은 노동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이에 반해 아카드인들은 염세적인 노동관을 갖고 있다.¹⁷⁾ 이것은 수메르인과 아카드인의 노동관이 그들의 생활환경 및 정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고대 근동세계에서의 노동관을 살펴보면 그 이면에 ‘인간창조’란 주제가 깊이 내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람이 노동을 왜 하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것은 더 나아가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볼 때 노동문제는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식론적인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말하자면 인간의 존재(Being) 및 격(Person)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다. 무엇보다 고대 근동의 노동관은 신들의 노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7) G. Pettinato, *Das altorientalische Menschenbild und die sumerischen und akkadischen Schöpfungsmythen*. (Heidelberg: Carl Wintle, 1971), 25.

즉 신들의 힘든 노동을 떠넘기기 위해 인간이 창조되어야만 했다. 여기서 인간은 단순히 신들의 종속물에 불과하다. 이런 곳에서 인간존엄성의 근거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이제 고대 이집트 세계에서의 노동관을 살펴본다. 그 곳에서는 노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이집트의 고대 역사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고왕국(주전 2686-2160년), 중왕국(주전 2040-1633년), 신왕국(주전 1558-1069년) 시대 세 단계로 구분된다. 따라서 각 왕국시대에 따라 이집트인의 노동관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¹⁸⁾ 고왕국에서는 실제적인 노예가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왕국에 들어와 사회구조가 바뀌면서 전쟁 또는 빚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된 사례들이 발견된다. 또한 중앙집권체제하에 글쓰기 행위가 고평가 되었다는 것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왕국시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연관된 시기로서 ‘아피루’¹⁹⁾의 존재를 통해 강제노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노동은 인생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이집트의 장례문화를 보면 죽음이후의 세계에서 일을 안했다면 바람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고대 근동세계와 마찬가지로 이집트 사람들 또한 살고 있었던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 따라 각각 노동관이 변화되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어 우리는 고대 헬라세계, 즉 희랍세계 및 로마제국에서의 노동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어떤 노동관을 갖고 있었을까? 고대 헬레니즘문명은 오늘날 서양문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 사회의 노동관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 우선 희랍사회

18) A. Eggebrecht u. a., *Geschichte der Arbeit. Vom Alten Ägypten bis zur Gegenwart*, (Köln: Kiepenheuer & Witsch, 1980), 43.

19)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박문재 옮김), (교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157. 원제는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Third Edi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1).

의 노동관 역시 초기에는 부정적이지 않았다. 특히 헤시오드(Hesiod)의 예를 보듯이 육체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도 있었음을 보여준다.²⁰⁾ 그러나 점점 사회발전이 진행되면서 사회구조가 심각한 변화를 겪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희랍과 로마 세계가 모두 노예사회라는 것이 특징이다.²¹⁾ 즉 사회가 엄격하게 신분이 구별된 계급사회라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헬라세계의 노동관은 주로 사회구조가 노예노동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에 노동에 대한 평가는 근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노예제도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리를 심화시켰으며, 마침내 서로를 배제하는 대립관계로 만들어버렸다. 그 제도의 확산은 결국 노동에다가 부자유와 품격저하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놓았다. 노동은 노예와 여자들의 몫이 되었으며, 이에 반해 여가는 자유로운 남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제 육체노동은 자유 시민에게는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 되었는데, 그 노동은 자유민인 그의 원래 목적에 모순되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희랍적인 이상은 직업적인 행위 없이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유복한 완전한 시민인데, 이들만이 폴리스에서 자신의 시민의무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가는 노동의 목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획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노동은 가능하면 피해야만 하는 부정적인 것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본연의 목적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런 노동관이 형성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것은 철학적인 신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세계의 철학자들의 사상은 그 후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즉 신은 최고단계의 이론적인 학문의 대상이다. 플라톤 및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인

20) Hesiod, *Werke und Tage*, in: *Sämtliche Werke* (Theogonie, Werk und Tage, Der Schild des Herakles) (Leipzig: Dieterich, 1938), 303–313. 그는 자신의 동생 페르세스(Perses)와 불의한 재판관들을 향하여 생명을 창조하는 정직한 농민의 노동의 가치를 찬양한다.

21) H. Cancik (Hg.), *Der Neue Pauly*, Enzyklopädie der Antike, Bd. II (Stuttgart: Metzler, 2001), 624–627.

생에서 최고단계는 '사고(이데아)'이다. 그것은 인간의 실제적 자아이면서 동시에 세계질서의 원칙인 세계정신으로서 영혼의 정신성, 불멸성과 비발생성에 대한 확신이다.²²⁾ 이런 사고는 우선 정신적인 것에 무게를 두게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만 진정한 인간됨이 실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예리하게 구분하는 노동관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공동체내에 분열의 씨를 심어놓게 된다.

2) 구약의 노동관

이제 눈을 돌려 성경의 노동관을 살펴보려고 한다. 구약성경은 노동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선 고대 근동세계의 신관은 수많은 신들로 구성된 다신론체계인데 비하여 구약성서는 유일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가장 큰 특징은 구약에서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존재라는 것이다.²³⁾ 그리고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들의 노동관의 바탕에는 율법(토라)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삶의 방향 및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적인 발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의 존재됨과 그의 노동은 모두 인간 창조신학에(창 1:26) 바탕하고 있다는 것이 구약의 선언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약 400년간 노예생활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다. 그래서 구약은 무엇보다 이 노동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자기규정적인 노동 외에 두 가지 낯설게 규정되는 노동이 있는데 바로 강제노동과 노예제도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는 강제노동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그것을 비난하는 경향이 강한데,

22) J. Halfwassen, "Platonismus", RGG⁴ Bd. VI (Tübingen: Mohr Siebeck, 1962), 1385, 1390.

23) 윤형,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재고찰", 『구약논단』50집 (2013년 12월), 138.

그것은 애굽에서 겪었던 이스라엘의 경험 때문이다. 그리고 계명과 율법은 노동에 있어 안식일의 준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안식일에는 노예 역시 쉼을 얻기 위하여 그의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출 20:10). 동시에 노예가 자유를 얻을 가능성도 있는데, 즉 노예는 희년에 노예상태로부터 방면되어야 한다(레 25:8ff.). 이런 상대적인 노예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에 근거하는데(출 20:2),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노예(종)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지배자와 종들 사이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노동’이라고 요약해서 표현된다. 따라서 구약에서는 회합적인 사고에 깊이 뿌리박힌 물질과 관념, 즉 행위적인 삶과 명상적인 삶 사이의 이원론은 낮설다. 구약의 창조기사에 따르면 노동은 처음부터 인간에 속해있는데(창 2:7; 2:15),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그의 부속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위한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일하시기 때문이다(사 45:18).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세상에서 자신의 문화명령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구약은 전체적으로 노동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됨(Person)을 숙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신약의 노동관

구약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근거한 노동관을 갖고 있다면 신약의 노동관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 자신이 목수의 아들이고 실제로 목수로도 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또한 구약적인 배경에서 자신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된다. 노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발언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라는 표현이

다. 이것은 하나님을 ‘노동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 신들은 노동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에 반해 예수를 보낸 그 하나님은 자신이 일하고 있다는 점이 그 특징으로 부각된다. 이것은 그 이후 교회공동체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오늘날 기독교문명 세계의 노동관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 예수와 함께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행한 바울 사도 또한 노동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스스로 천막을 기우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정신노동만이 아니라 육체노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신약적인 노동관 또한 인간에 대해 통전적으로 접근하면서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유대인의 노동관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노동관을 살펴본다. 유대인들은 노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들의 노동관은 대체로 구약성경에 근거한다. 이들의 노동관은 랍비들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런 면에서 랍비 유대교와 후기 유대교의 노동관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토라(Tora)와 노동(Work)’의 관계이다. 즉 그들은 토라연구와 생활노동을 분리시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One)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²⁴⁾ 말하자면 그들에게서 희랍 및 로마세계에서 볼 수 있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과의 날카로운 구별을 찾아볼 수 없다. 동시에 이들이 노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식일 계명을 생활에 깊숙이 받아들여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히브리어로 안식일을 의미하는 샤바트(שַׁבָּת)는 ‘무엇을 그만 두다, 끊다’를 의미한다. 즉 안식일에는 일상생활의 흐름을 끊는다는 것이다. 모든 열

24) M. Brocke, "Arbeit", TRE 3, (Berlin: de Gruyter, 1978), 619.

25) D. Vetter, *Das Judentum und seine Bibel*, Religionswissenschaftliche Studien 40 (Würzburg: Echter, 1996), 340.

망이라든가 노력은 하루 동안 끊어야하는데(출 16:23),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불가분리로 속해있다는 것과 자신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삶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에 빛을 비추심으로 안식일을 축복하셨으며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평일에 보는 사람의 얼굴은 안식일에 보는 그 얼굴과는 다르기 때문이다”.(미드라쉬 브레쉬트 랍바 XI,2,3) 이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특별한 영을 선사하기 때문이다(b Beza 16a).²⁶⁾ 이처럼 유대교의 노동관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존재(Person)라는 전제에 기초하여 노동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본문주석과 해석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본문에 대한 주석을 통해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노동관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공동체적인 노동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무엇보다 인간 및 노동의 기원과 관계된 창세기 1-2 장 중 네 개의 핵심 본문을 다루면서 성경에 나타난 인간관 및 노동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Person²⁷⁾(격, 창 1:26-27)

우선 노동의 주체인 사람의 기원에 대해 알아야 해야 한다. 즉 인간이 어디에서 기원했고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적인 인간관 및 노동관의 기저를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26) 윗글, 340.

27)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랜덤 하우스 영한대사전」(서울: 시사영어사, 2003), 1713. 이것은 성별, 연령을 불문하고 사람을 가리킨다. 그리고 동물, 물건과 구별하여 인간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그것은 각자가 속하는 문화에 따라 조건이 부여되고 있는 사회적인 여러 관계나 행동양식에서 본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적으로는 인격이 있는 존재로서 자의식과 이성을 가진 존재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고대 근동세계에서 인간은 신들과 주종관계에 놓여있으며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인간의 소명이다. 더군다나 그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유는 인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준다. 그 당시 인간이 창조되는 이유는 바로 노동 때문인데 그 이유와 과정이 매우 조잡하다. 즉 신들의 힘든 노동을 떠넘기기 위해 그리고 반란자들의 피로 인간을 만들었다.²⁸⁾ 이에 반해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졌다. 이와 아울러 고대 근동의 신들은 그 수발을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으나 성경의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생존을 위해 생태적인 환경을 창조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람의 인간관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준거점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본문(MT와 개역개정판)을 주석하고 해석하고자 한다(창 1:26-27).

וַיֹּאמֶר אֱלֹהִים נַעֲשֶׂה אָדָם בְּצַלְמֵנוּ כְּדְמוּתֵנוּ וַיְרַדּוּ בְרֵנֹת הַיָּם וּבְעֵרֵי הַשָּׁמַיִם
וּבְבְהֵמָה וּבְכָל-הָאָרֶץ וּבְכָל-הָרֶמֶשׂ הָרֹמֵשׂ עַל-הָאָרֶץ:

וַיִּבְרָא אֱלֹהִים אֶת-הָאָדָם בְּצַלְמוֹ בְּצַלְמֵם אֱלֹהִים בָּרָא אֹתוֹ זָכָר וּנְקֵבָה בָּרָא אֹתָם: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은 6일차에 땅위의 생물을 창조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창조된다. 2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말하고 있으며 관련 히브리어 동사는 עָשָׂה(아사/만듬)이

28) 빅터 해밀턴, 「오경개론」(강성열, 박철현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42-48. 원제는 Victor P. Hamilton, *Handbook on the Pentateuch* (Grand Rapids: Baker Book, 2005).

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만들다(to make)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27절에서 인간창조가 이루어진다. 이 절에서 특이한 점은 בָּרָא(바라/창조하다) 동사가 세 번 반복되어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 동사는 하나님이 창조주체일 때만 사용되는 특이한 동사이다. 동시에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새로 만들어질 때 사용된다.²⁹⁾ 2장 7절에서 사람을 지을 때 쓰이는 동사는 יָצַר(야차르/짓다)인데, 이로써 인간창조에 쓰인 동사는 모두 세 개다. 그러므로 창조의도에는 아사를, 실행에는 바라와 야차르란 동사를 사용한다. 이에 비해 6일차에 창조된 땅위의 짐승들을 만들 때엔 아사동사를 사용한다. 이것은 사람과 짐승의 창조를 동사를 통해 각각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מְצַלֵּם(첼렘/형상)을 따라 그의 דְמוּתוֹ(드무트/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형상은 אִיְכוֹנָה(에이코나/이미지)를 의미하고 모양은 תְּמוּנָה(호모이오신/유사함)을 가리킨다.³⁰⁾ 그리고 26절에서 히브리어 전치사 בְּ(브/안에)와 כְּ(크/처럼)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유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피조물일 따름이다. 이 창조과정에서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사이의 구별은 의미가 없다. 만일 그 형상이라는 것이 단지 정신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회랍철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사고 안에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존재가 된다. 이것은 육체와 정신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오히려 하나님 형상 개념은 인간존재 전체를 의미한다: “창세기 1장 26-27절은 인간의 육체라든가 정신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인적인 인간자체를 의미할 수 있

29) J. Bergmann, “בָּרָא” ThWAT, Bd. I (Stuttgart: Kohlhammer, 1973), 773.

30) 이에 유대인 영어 성경(JPS HEBREW-ENGLISH) TANAKH은 26절 상반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 그리고 칠십인역(LXX)에서는 מְצַלֵּם(첼렘/형상)을 에이콘(image)으로, דְמוּתוֹ(드무트/모양)를 호모이오시스(likeness, resemblance)로 번역한다.

다.”³¹⁾ 그것은 인간관 및 노동관과 관련하여 중요한 증거점을 제공한다. 모든 인간은 육체와 정신 사이의 구별 없이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자기됨(Selbstsein)은 원천적으로 창조 신학적인 토대위에 서 있다. 이와 아울러 하나님은 계층화된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아담) 그 자체를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은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자기 규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피 규정적 존재이다. 26절에 나온 다스림의 주체가 복수인 까닭에 27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함으로써 처음부터 인간은 공동체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의 노동과제는 온 땅과 바다와 하늘과 땅위의 생물에 대한 ‘다스림’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기 존재됨(Person)은 신학적인 근거에 기초할 때 그 개체적인 정당성을 확보한다. 동시에 이것은 상대방의 자기 존재됨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³²⁾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신학적인 근거에 노동관을 정립할 때 보다 성숙한 사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2) 문화명령(창 1:28)

이제 창조된 인간에게 과제가 주어진다. 즉 세상 만물에 대한 다스림이다. 이것은 세상에서 인간의 노동이 무엇인지 잘 말해준다. 이것이 소위 문화명령이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노동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כָּבַד**(카바쉬/정복하다), **רָדָה**(라다/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 낱말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지배’를 말하는가 아니면 그 세상에 대한 ‘의존’을 말함인가? 그

31) C. Westermann, *룻*, 207: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의 형상이란 개념이 제왕 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 있다.

32) Robert Spaemann, *Persons. The Difference between 'Someone' and 'Somet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6. 39. To ascribe 'personal existence' is to recognize that someone can claim a certain kind of treatment from anyone who encounters him.

리고 이것은 공동체 개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은 해석학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본문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창 1:28).

וַיְבָרֶךְ אֹתָם אֱלֹהִים וַיֹּאמֶר לָהֶם אֱלֹהִים פְּרוּ וּרְבוּ וּמְלֵאוּ אֶת-הָאָרֶץ וּכְבֹּשׁוּהָ
וַיִּרְדּוּ בְרֵנֶת הַיָּם וּבְעֹפֵף הַשָּׁמַיִם וּבְכָל-חַיָּה הַרְמֹשֶׁת עַל-הָאָרֶץ: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만물과 인간과의 관계이다. 이것은 원래부터 그런 것(status quo)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에서 직접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명령의 성취에서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 주권에 인간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땅을 다스리라는 것(Dominium Terrae)은 하나님께 종속된 또는 의존된 사람들에 대한 주인의 관계를 묘사하는 정치적인 용어이다. 이와 관련된 히브리어 동사는 כָּבַשׁ(카바쉬/정복하다)와 יָרַד(라다/다스리다)인데, 두 동사 모두 ‘폭력적인 뺏음’이라는 개념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낱말이 사용된 문맥 및 그에 대한 분석 관점에 따라 그 해석이 틀려진다. 뤼터스뵈르덴(U. Rütterswörden)에 따르면 이 동사들은 모두 폭력적인 다스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³³⁾ 하지만 코흐(K. Koch)에 따르면 이 낱말들이 사려 깊은 관리와 관계가 깊다.³⁴⁾ 이처럼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이 두 동사를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본 문장이 쓰인 현재 문맥에 따르면 후자의 개념이 더 타당성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과정에 나타난 질서적인 측

33) U. R. terswörden, *Dominium Terrae* (Berlin: de Gruyter, 1993), 103.

34) K. Koch, *Spuren des hebräischen Denken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1), 233. 하경택, “〈창조와 종말〉 주제를 위한 동물의 신학적 의의”, 『구약논단, 30집 (2008년 12월)』, 132.

면과 폭력과 거리가 있는 채식주의 (창 1:29-30)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주권명령은 사람으로부터 제거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표현한다. 다른 한편 이것은 인간에게 자연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왜냐하면 그는 자연에 대하여 아주 낮은 대립적인 존재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동시에 그 또한 자연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즉 연대적이며 공동체적이다. 다스림의 권한은 세상에 대하여 절대적인 자기중심적 태도를 가진 무조건적인 자기규정으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그 주권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하나는 전제군주이던가 아니면 봉사로서의 주권, 즉 모든 생명의 실제적인 상호관계성을 명령하는 계약의 이행이다.³⁵⁾ 주체와 관련하여 이 다스림의 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지배권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이 명령의 대상은 인간을 제외한 세상 만물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은 본래 상호 연대적이다.

3) 노동과 안식(창 2:2-3)

노동에 있어 '쉬'이란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탐심이란 욕구를 갖고 있어 계속 일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고대세계에서 안식이란 요소가 자유인에게만 해당하고 노예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 노동관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종관계에 놓여있는 노예는 온전한 안식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없는 사회구조에서 살아가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이란 개념은 공동체적인 노동신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성경에서 특별히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의 창조사역 마지막 부분에서 쉬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 관련 본문은 창세기 2장 2-3절이다.

35) C. Amery, *Das Ende der Vorkehrung. Die gnadenlosen Folgen des Christentums* (Hamburg: Rowohlt, 1972), 199.

36) N. Lohflink, *Unsere gro en W rter* (Freiburg: Herder, 1985), 190-208.

וַיְכַל אֱלֹהִים בַּיּוֹם הַשְּׁבִיעִי מְלַאכְתּוֹ אֲשֶׁר עָשָׂה וַיִּשְׁבֹּת בַּיּוֹם הַשְּׁבִיעִי
 מִכָּל-מְלַאכְתּוֹ אֲשֶׁר עָשָׂה :

וַיְבָרֶךְ אֱלֹהִים אֶת-יְוֹם הַשְּׁבִיעִי וַיְקַדְּשׁ אֹתוֹ כִּי בּוֹ שָׁבַת מִכָּל-מְלַאכְתּוֹ אֲשֶׁר-בְּרָא
 אֱלֹהִים לַעֲשׂוֹת :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조사역의 마지막은 노동과 관계없는 ‘일을 멈추는 날’의 창조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단어선택에서 나타난다(창 2:3). 왜냐하면 קָדַשׁ(카다쉬/구별)는 구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שָׁבַת(샤바트/그만두다)는 ‘쉬다’가 아니라 ‘그만 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즉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날에 하나님이 일을 멈추었다는 것이다. 나중에 이 날은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의 모델이 된다(출 20:11; 31:17). 이것은 신학적인 패러다임의 정립인데, 이는 하나님의 쉼이 그 원형(prototype)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축들도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출 20:9f.; 신 5:13f.). 동물이 쉰다는 생각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안식일의 의미가 보다 넓게 확장된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것은 세상만물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성경적인 안식일의 독특함은 고대 근동세계의 그것과 뚜렷이 구분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일과 안식이 신들과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신들은 거룩한 안식을 누리는 존재들이고, 이에 반하여 인간들은 일을 해야 한다. 이는 신들로 하여금 안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³⁷⁾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은 노동을 마치고 난 후 인간적인 안식의 전형이다. 나중에 그 안식은 애굽이란 ‘종의 집’으로부터 나온 후 시내산의 십계명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전범을 따라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명령한다(출 20:11). 안식일에는 모든 피조물이 안식을 취해야하는데(출 20:10; 신 5:12), 그래야 이 날에 경작을 하지 않는 땅도 쉬게 된다. 따라서 안식일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생태학적인 차원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앞 단락에서 서술한 사람의 세상 주권(창 1:28)은 이 ‘쉬’에 근거한다. 이렇게 노동의 멈춤 또한 공동체적인 노동신학을 정립하는데 필수요소이다.

4) 경작과 지킴(창 2:15)

창조기사의 다스림 명령에 이어 낙원이야기에서는 인간에게 구체적인 노동과제가 주어진다. 즉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다. 이것은 인간이 땅위에서 실제로 수행할 노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 본문은 공동체적인 노동신학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경작하다’와 ‘지키다’라는 단어로서, 그것은 히브리어로 עָבַד(아바드/경작)와 שָׁמַר(샤마르/지킴)라고 하는데, 관련 본문은 창세기 2장 15절이다.

וַיִּקַּח יְהוָה אֱלֹהִים אֶת־הָאָדָם וַיִּנְחָהוּ בְּגַרְעֵן לְעֹבְדָהּ לְשָׂמְרָ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본문은 포괄적인 다스림의 명령(창 1:28)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동산에 데려다 놓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의 동사들이 서로 다르다: 8절에서는

37) G. Pettinato, *윗글*, 21f.

אָרְבֵּי(바야셈)이 그리고 15절에서는 אֲרִיזוֹנָה(바안니에후)가 사용된다. 각각 의미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내려놓았다, 그를 안식하게 하였다. 왜 서로 다른 동사들이 사용될까? 이에 야콥(B. Jacob)은 사람이 동산에서 일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쉬(사30:15, נָח/누아흐)과 안식(אָנַח/므누하)의 기쁨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³⁸⁾ 이것은 일터가 단순히 노동만 하는 곳이 아님을 보여준다. 사람의 노동과 관련하여 여기서 처음으로 אָבַד(아바드/경작)동사가 사용된다. 근본적인 의미는 ‘제 삼자에 의해 야기된’ 행위를 표현한다. 앞에서 살펴본 창세기 1장 28절의 두 동사 אָבַד(라다/다스리다)와 כָּבַשׁ(카바쉬/정복하다)는 땅의 경작과 지킴에서 구체화된다. 이런 점에서 사람의 노동은 주권명령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경작과 지킴은 dominium terrae(땅을 다스리라)의 진정한 해석이다.”³⁹⁾ 게다가 אָבַד(아바드/경작)은 ‘섬김’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경작이란 개념은 단순히 땅을 사람의 목적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섬김은 땅의 전적인 객체화가 아닌데, 이는 사람의 봉사를 통해 땅에게도 주체적인 성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작과 아울러 지킴의 과제도 주된 노동과제이다. 이것은 노동객체에 대한 사려 깊은 관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 속에는 ‘경작과 지킴’의 상호보완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동은 언제든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분명히 인간의 연대감이라는 표상과 땅에 대한 봉사라는 그의 과제의 특징은 창세기 1장과 시편 8편의 주권적인 지위와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있다.”⁴⁰⁾ 이렇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에 연대감을 갖도록 짓고 창조했다. 그러므로 폰 라드(G. von Rad) 역시 둘 사이의 강한 의존성을 강

38) B. Jacob, *Das Buch Genesis* (Stuttgart: Calwer, 2000), 91. 2장 15절 동사(히필/사역동사) 어근은 נָח(누아흐/쉬다)로서 그 안에 ‘쉬’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39) G. Liedke, *Von der Ausbeutung zur Kooperation*, in: *Humanökologie und Umweltschutz*, E. von Weizsäcker (Hg) (Stuttgart: Klett, 1972), 45.

40) U. Neumann-Gorsolke, *Herrschen in den Grenzen der Schöpfun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4), 325.

조한다. “인간은 땅으로부터 취해졌다. 따라서 그는 땅으로 보내진다. 땅은 그 존재에게 모성적인 근본으로서 창조에 걸맞은 연대성이 인간과 땅 사이에 있다.”⁴¹⁾ 두 가지 측면은 바로 주권과 봉사이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의 노동은 그 노동의 대상과 공동체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사회사적인 노동관과 성경의 노동관을 서로 비교 검토한 결과 원래 사람의 노동은 관련 당사자들과 공동체적 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또한 고대 근동세계의 노동관은 다신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반해 성경의 노동관은 유일신론에 근거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격(Person)개념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노동의 주체와 그 객체 사이의 관계는 ‘상하지배’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의존’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이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이고 편향적인 노동관을 공동체적인 노동관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살롬(평화)과 자유가 숨 쉬는 창의적인 근로사회가 될 것이다.

6. 참고문헌

귄터 브락켈만, 「기독교 노동윤리」(백용기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4), 97-100. 원저 Brakelmann, G., *Zur Arbeit geboren?* (Bochum: SWI-Verl. 1988).

교황레오 13세, 「노동헌장」,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교육분과

41) G. von Rad, *Das Erste Buch Mose/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6), 67.

- 위원회 옮김,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7). 원제 Pope Leo XIII, *On the Condition of Workers: Rerum Novarum* May 15, 1891 (Publication No. 333-7).
- 빅터 해밀턴, 「오경개론」(강성열, 박철현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42-48. 원제 Hamilton, Victor P., *Handbook on the Pentateuch* (Grand Rapids: Baker Book, 2005).
- 윤 형, “성경의 원역사에 나타난 노동과 주권 (창 1-11장)”, 「구약논단」41집 (2011년 9월), 136-157.
- _____,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재고찰”, 「구약논단」50집 (2013년 12월), 117-143.
-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박문재 옮김),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157. 원제 Bright, John, *A History of Israel Third Edi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1).
- 하경택, “〈창조와 종말〉 주제를 위한 동물의 신학적 의의”, 「구약논단」30집 (2008년 12월), 126-146.
- Amery, C., *Das Ende der Vorsehung* (Hamburg: Rowohlt, 1972).
- Bergmann, J., “בְּרֵא” *TbWAT*, Bd. I (Stuttgart: Kohlhammer, 1973).
- Brocke, M., “Arbeit”, *TRE* 3, (Berlin: de Gruyter, 1978).
- Cancik, H.(Hg.), *Der Neue Pauly*. Enzyklopädie der Antike, Bd. II (Stuttgart: Metzler, 2001).
- Ebach, J., “Menschen mit, nicht durch Arbeit”, *TbPQ* 152 (2004), 275-283.
- Ebach, J., *Arbeit und Ruhe*, in: *Ursprung und Zi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5), 90-110.
- Ebach, J., *Wententstehung und Kulturentwicklung, bei Philo von Byblos* BWANYT 108 (Stuttgart: Kohlhammer, 1979).
- Eggebrecht, A., u.a., *Geschichte der Arbeit. Vom Alten Ägypten bis zur*

- Gegenwart* (Köln: Kiepenheuer & Witsch, 1980).
- Halfwassen, J., "Platonismus", RGG⁴ Bd. VI (Tübingen: Mohr Siebeck, 1962).
- Hesiod, *Werke und Tage*, in: Sämtliche Werke (Theogonie. Werk und Tage. Der Schild des Herakles) (Leipzig: Dieterich, 1938).
- Jacob, B., *Das Buch Genesis* (Stuttgart: Calwer, 2000).
- Koch, K., *Spuren des hebräischen Denken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1).
- Liedke, G., *Von der Ausbeutung zur Kooperation*, in: Humanökologie und Umweltschutz, E. von Weizsäcker (Hg) (Stuttgart: Klett, 1972).
- Lindhagen, C., *The Servant Motif in the Old Testament* (Uppsala: Lundequistska, 1950).
- Lohfink, N., *Unsere großen Wörter* (Freiburg: Herder, 1985).
- Neumann-Gorsolke, U., *Herrschen in den Grenzen der Schöpfun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4).
- Pettinato, G., *Das altorientalische Menschenbild und die sumerischen und akkadischen Schöpfungsmythen* (Heidelberg: Carl Winter, 1971).
- REFA, *Methodenlehre des Arbeitsstudiums* Teil I (München: Hanser, 1973).
- Riesener, I., *Der Stamm db[im Alten Testament* (Berlin: de Gruyter, 1979).
- Rüterswörden, U., *Dominium Terrae* (Berlin: de Gruyter, 1993).
- Richardson, A., *Die biblische Lehre von der Arbeit* (Frankfurt a. M.: Anker, 1953)
- Spaemann, Robert, *Persons. The Difference between 'Someone' and 'Somet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2006).

Vetter, D., *Das Judentum und seine Bibel*, Religionswissenschaftliche Studien 40 (Würzburg: Echter, 1996).

Von Rad, G., *Das Erste Buch Mose/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6).

Wetermann, C., *Genesis BK I /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9).

검색어

노동

자유

안식

다스림

공동체

Establishment of Correlative Work Theology (Control and Dependance)

Hyung Youn

Lecturer at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Ruhr University in Bochum Dr. Theo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the right concept of Work-theology. At present the master-servant relation dominates anywhere in Korea, especially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enterprises. This is

www.kci.go.kr

why the fundamental ethical perspective for a human being is wrongly oriented. Therefore we need to change our view of human beings. Otherwise the conflicts within our community will be deteriorating. So this article tries to find its balanced concept of human being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biblical texts. In the process of it, the linguistic approach is to be used, so that the related texts may be more precisely analysed. Simultaneously the canonical method of approach, which is more concerned with the faith community, is practi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ocio-economic history, the old Orient and the hellenistic(Greece and Rome) civilization showed a discriminating attitude between master and slave. On the contrary, the Jewish tradition and the bible(old and new testament) take a balanced attitude between physical and mental work. In the following four central parts, the present writer will interpret the biblical texts in relation to this theme. What is most fundamental is the concept of the personality, that is, how to see human beings, especially in Genesis 1:26-27. Secondly, the present writer will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 and creatures and mankind. Here we also find that there is a correlation among them. Thirdly, the concept of rest is very important for the correlative work. Finally, work in itself is closely dependant on earth, the field for work. As a result of the present study, we have come to a conclusion that all workers are correlative each other on the condition that they are theological Beings(Persons).

Keywords

Work

Freedom

Rest

Rule

Community

- 투고일: 2014년 4월 01일
- 심사일: 2014년 4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06일

www.kci.go.kr